

## 漢詩를 통해 본 許蘭雪軒의 지향의식\*

윤인현\*\*

<차 례>

1. 序論
2. 주체적 自我로서의 여성
3. 글쓰기를 통한 자기 세계 추구
4. 烈士의 氣風
5. 結論

### <국문초록>

‘한시를 통해 살펴본 허난설헌의 지향의식’은 시대를 앞서간 여성이 지녔던 주체의식과 烈士적 풍모였다. 주체적으로 자신의 세계를 인식한다는 것은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던 시대였다. 남성중심의 지배담론 곧 사회규범과 제도, 가치판단 등에 의해서 모든 것이 평가되던 시대이기 때문이다. 난설헌은 자신을 지배하는 지배 담론인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자기 자신을 지키는 자아로서 적극적 애정관을 통해 자신의 사랑을 갈구하기도 하였으며, 그 갈구가 사회적·문화적 공간에 막히자 글쓰기 방법을 통해 자기의 주체성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그가 글쓰기에서 선호했던 신선세계에 대한 동경은 그만의 특성이었다. 현실의 규범과 가치 척도에 의해 좌절할 수밖에 없던 난설헌의 삶은 그의 글쓰기를 통해 이룩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난설헌의 선계는 현실에서의 모순된 공간을 극복한다는 의미와 동시에 그의 이상 실현을 보여주었다. 仙界에 초대받기도 하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再嫁도 가능한 곳이었다. 스무 살 이후의 삶의 과정에서 형성된 신선세계에 대한 동경은 여성으로 말하기의 큰 축을 이루는 가운데 여성 주체로서의 매혹적이고도 서글픈 여성의 글쓰기를 구축하는 중심점이 되었던 것이다. 그러면서도 이웃들

\* 이 논문은 인하대학교의 지원에 의해서 연구되었음.

\*\* 인하대학교 프린티어학부대학 조교수

에 대한 관심도 드러내는 열사적 풍모를 지녔던 그녀는 시대를 앞서간 여성의 한 분으로 인식해도 무리가 없을 듯하다.

□ 허난설헌, 주제적 의식, 글쓰기, 이상동경, 열사(烈士)의 풍모, 선구자적 여성

## 1. 序論

본고는, 조선 중기 신분적 불평등과 성차별의 사회를 살았던 허난설헌의 시문학을 통해 그의 삶을 오늘의 시점에서 조명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신분 사회의 질곡인 남성과 여성의 차별이 여전히 존재했던 당시, 주제적 자아를 꿈꾸면서 표현의 자유를 갈망했던 시인의 삶을 살펴보는 것도 의의 있는 일이 될 것이다.

許楚姬(1563~1589)는 선조 때 대사성·부제학 벼슬을 지낸 아버지 許曄(1517~1580)과 어머니 강릉 김씨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와 同腹으로 12살 많은 오빠 許筭(1551~1588)과 6살 아래인 許筠(1569~1618)이 있다. 동복은 아니지만 이조판서를 지낸 큰 오빠 許箴(1548~1612)도 있다. 아버지 허엽은 난설헌이 태어난 이듬해에 慶州府尹으로 나아갔다가 5살 되던 해에 서울로 올라와 살았다. 그가 서울에서 살던 곳은 지금 서울 중구 인현동 일대로, 당시 인재들이 많이 살았던 곳이다. 허균은 『惺翁識小錄』(下)에서 김종서·정인지·양성지·김수온·노수신·유성룡·이순신·원균 등을 비롯하여 父親과 형님을, 이름난 명사로 소개하였다.<sup>1)</sup> 당

1) 許筭, 『惺翁識小錄』(下). “余親家在乾川洞, 自青寧公主邸後, 至本房橋, 纔三十四家, 國朝以來多出名人. 金宗瑞鄭麟趾李季全爲一時, 梁誠之金守溫李秉正爲一時, 柳順汀權敏手柳聃年爲一時, 其後盧相及先大人監邊知事協爲一時, 近世柳西厓及家兄監李德豐舜臣元原城均爲一時, 而西厓有功於中興之役, 元李二將

시의 지명은 乾川洞으로, 명사들을 나열한 것을 보면 난설현과 균에게 영향을 미쳤던 동네이다. 그리고 ‘난설현의 문장은 집안에서부터 시작되었다.’<sup>2)</sup>고 했다. 그런데 그 글공부가 누구에게 시작된 것인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아마도 둘째 오빠인 허봉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허봉이 여동생 난설현의 글재주를 알고 아꼈기 때문이다. 허봉이 “경번의 글재주는 배워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sup>3)</sup>라고 한 것처럼, 그의 글재주를 알아보고 唐나라 시인 두보의 시집을 선물하면서(1582) “내가 열심히 권하는 뜻을 저버리지 않으면 회미해져 가는 두보의 소리가 누이의 손에서 다시 나오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sup>4)</sup>라고 격려하였다. 두보는 현실적 문제에 관심을 두는 사회시를 많이 지었다.

蘭雪軒은 그의 堂號이다. 여성으로서 드물게 號와 字를 지녔던 인물이다. “蘭雪軒의 이름은 楚姬이고 字는 景樊이니, 草堂 曄의 딸이며 西堂 金誠立의 아내이다.”<sup>5)</sup>라고 허균이 『鶴山樵談』에서 소개한 것처럼, 許楚姬는 姓名이다. 이름 ‘楚姬’는 春秋시대 楚나라 莊王의 어진 아내 ‘樊姬’를 가리킨다. 그래서 ‘번희’를 사랑하라는 뜻으로 ‘경번’이라는 字를 지어 주었다<sup>6)</sup>고 한다. 번희는 莊王의 부인으로, 사냥에 몰두했던 莊王에게 충언을 하여, 그를 霸王으로 나아가게 했던 인물이다. 莊王을 놀라게 하던 虞丘子가 인제는 천거하지 않고 밤늦게까지 莊王을 놓아주지 않자

有再造之功，到此尤盛。”

2) 許筠, 『惺所覆瓿藁』卷十, 『答李生書』. “兄姊之文, 得於家庭.”

3) 許筠, 『惺所覆瓿藁』卷二十六, 부록1, 『鶴山樵談』. “仲氏嘗曰, 景樊之才不可學而能也.”

4) 許筠, 『荷谷集』, 『題杜律卷後奉呈妹氏蘭雪軒』. “其無負余勤厚之意, 俾少陵希聲復發於班氏之手可矣.”

5) 許筠, 『惺所覆瓿藁』卷二十六, 부록1, 『鶴山樵談』四. “蘭雪名楚姬字景樊草堂曄之女西堂金誠立之妻.”

6) 허미자, 『허난설현』, 성신여자대학교 출판부, 2007, 32쪽.

그를 간신으로 단정하여, 그의 잘못을 바로잡은 현명한 부인이다. 허엽도 그런 그를 본받게 하고자 경번이라는 字를 지어주었던 것이다. 아이가 태어나면 아버지는 3일째 되던 날, 아이의 손을 잡고 그 아이가 바른 인물이 될 수 있도록 이름에 그 소망을 담아 지어준다. 그런 후 관례식을 할 때 그동안의 성장 과정을 지켜본 결과, 그 성품과 자질에 맞는 인물이 되기를 바라는 뜻을 담아 字를 지어주게 되는 것이다. ‘초희’와 ‘경번’에는 아버지의 바람인 현명한 여성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었던 것이다. 조선시대에는 여성들이 자신의 이름을 가지기보다는 가문의 성씨만으로 살던 시대였다. 그런 시대를 살았던 난설현은 이름과 字 그리고 號까지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의 시문학은 중국·일본·한국 세 나라에 전해지기도 한다.

아버지의 바람과는 다르게 결혼 후 난설현의 생활은 행복하지 않았다. 14살에 한 살 많은 金誠立(1562~1593)과 혼인 한 난설현은, 두 아이의 요절과 또 한 아이의 유산, 그리고 독수공방 등 외롭던 결혼 생활이 그것을 대변하고 있다. 남편 김성립의 집안은 안동 김씨로 6대나 급제자를 내는 명문가 집안이었다.<sup>7)</sup> 시아버지 荷塘 金瞻(1542~?)과 난설현의 둘째 오빠 허봉은 독서당 친구 사이였다. 그리고 시어머니 송씨 부인의 오라버니는 허봉과 가까웠던 宋應漑(1536~1581)였다. 이런 친분으로 두 사람의 혼인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들 집안은 모두 東人의 당색이었다. 이들은 모두 西人인 栗谷 李珣를 탄핵하다가 좌천되거나 귀양 갔던 인물들이다. 남녀의 애정관에 따른 혼인보다는 당색으로 맺어진 혼인이기에 두 사람은 조선시대 어느 집안의 혼인보다도 더 심한 집안끼리의 혼인이었던 것이다. 이런 누나에 대해 허균은 “나의 돌아가신 누님은 현명하고 문장도 지었으나, 시어머니의 사랑을 얻지 못하였고 또 두 자식까지 잃어

7) 위의 책, 63쪽.

마침내 한을 품고 세상을 떠났다. 늘 생각하면 몹시 슬프다.”<sup>8)</sup>라고 하였다. 허균의 회고처럼, 난설현은 조선시대 평범했던 여성으로서의 평탄한 삶을 누리지 못했다.

지금까지 난설현에 대한 연구는, 평전<sup>9)</sup>을 비롯하여 한시의 내용 및 주제 분석<sup>10)</sup>과 한시에 나타난 페미니즘과 자의식<sup>11)</sup> 그리고 도학 사상 연

8) 許筠, 『惺所覆瓿藁』 제3권 辭, <毀璧辭 并序>. “余亡姊賢而有文章, 不得於其姑, 又喪二子, 遂齋恨而歿, 每念則盡傷不已.”

9) 장정룡, 『허난설현 평전-불꽃같이 짧은 생애의 찬란한 시문학』, 새문사, 2008.

10) 文暲鉉, 『許蘭雪軒 全集』-詩와 生涯, 寶蓮閣, 1972.

李淑姬, 『허난설현의 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7.

장인애, 『허난설현의 시문학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김복순, 『조선시대 여성 한시에 나타난 여성 주체의 성격 연구』,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김지숙, 『허난설현 한시 연구』,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김성남, 『허난설현 시 연구』, 소명출판, 2002.

박혜숙, 『허난설현』, 건국대학교 출판부, 2004.

한성금, 『許蘭雪軒 漢詩의 美學』,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허미자, 『허난설현』, 성신여자대학교 출판부, 2007.

김명희, 『허난설현의 시문학』, 국학자료원, 2013.

유옥례, 『허난설현의 애정시 연구』, 『溫知論叢』 제44집, 溫知學會, 2015, 43~62쪽.

이화형, 『허난설현의 삶과 문학에 나타난 주체와 자유의식 고찰』, 『우리문학연구』 제 50집, 경인문화사, 2016, 145~173쪽.

11) 車玉德, 『許蘭雪軒 작품에 나타난 페미니스트 의식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6.

전재연, 『허난설현 한시에 나타난 페미니즘 연구』,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金鍾順, 『許蘭雪軒 文學과 生에 對한 페미니즘 研究』, 한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유임순, 『허난설현 시에 나타난 페미니즘 의식 연구』,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황혜경, 『허난설현 한시를 통해서 본 여성 의식』,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鄭東眞, 『許蘭雪軒의 家庭環境과 女性의식』, 강릉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구<sup>12)</sup> 등이 주류를 이루는데, 난설헌이 지녔던 의식은 기존 연구자들이 주로 蓀谷 李達의 영향이라고 하였다. 본고는, 기존 연구 성과를 필요에 따라 적절히 반영하면서 난설헌의 한시를 통해 그가 지향했던 의식을 고찰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 동안 잘못 진행된 연구도 바로잡힐 수 있을 것이다.

## 2. 주체적 自我로서의 여성

난설헌은 남자들과 똑같은 욕망을 지닌 존재로 사랑을 갈구하는 모습과 그 사랑의 그리움을 통해 여성으로서의 자기 극복은 물론 자기 역할에 충실하려는 여성이었다. 그의 한시에는 당시의 여성들이 지니지 못한 적극적인 태도가 있기 때문이다. 한시라는 양식과 시적 소재, 주제를 통해 자기의 생각을 시문학으로 표현해 내는 그 자체가 시대를 앞서간 여성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신분제 사회이면서 남존여비의 사회 구조로 인해 性的인 사랑까지 통제 받던 시대의 난설헌에 대한 평가는 어떠했을까?

李德懋가 지은 『靑莊館全書』에는, 淸나라 潘庭筠(1742~?)과 조선 실학자 漉軒 洪大容(1731~1783)이 나눈 대화가 있다.

---

2008.

崔賢伊, 『許蘭雪軒 詩에 투영된 自我像 研究』, 公州大學校 大學院 석사학위논문, 2011.

12) 김경진, 『許蘭雪軒의 遊仙詩에 나타난 幻想性 考察과 指導方案 研究』,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남연, 『許蘭雪軒 詩에 나타난 도교사상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난공 : 귀국의 경변당은 허봉의 누이동생으로 시를 잘 지었다고 이름나서 중국의 詩選集에도 실렸으니, 어찌 다행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담헌 : 이 부인의 시는 경지가 높지만, 그의 덕행은 시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의 남편 김성립은 재주와 외모가 뛰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인이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인간 세상에서 김성립을 이별하고, 지하에서 오래도록 두목지를 따르리라.> 이 시만 보아도 사람됨을 알 수 있습니다.

난공 : 아름다운 부인이 즐부와 짝이 되었으니, 어찌 원망이 없겠습니까?”<sup>13)</sup>

위의 담헌이 인용한 시는 난설헌이 지은 시인지 확인할 길이 없다. 담헌 당시 好事家들이 지어낸 말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호사가들이 지어낸 말이기 는 하지만, 그 당시 난설헌에 대한 정보 내지 특징을 알 수 있게 한다. 감히 不事二夫가 아닌 자유의 영혼이면서 주체적 자아로서의 난설헌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기 때문이다. 七去之惡에 매여 자신의 주체성은 물론 性 결정권마저 강요당했던 조선시대의 여성 사회에서 과감히 자신의 성 결정권을 말할 수 있는 여성으로, 허난설헌을 들고 있다는 것은 그의 실존적 존재감을 느낄 수 있게 한다. 이승에서의 잘못된 만남은 내세에서 당나라 시대 자유로운 영혼인 杜牧을 만나 偕老하고 싶다고 한 그의 당당한 포부는 배우자의 선택권을 당당하게 내세울 수 있는 여성의 대명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1614년에 편찬한 『芝峯類說』에서 李睟光(1563~1628)은, 허균이 1608년에 간행한 『蘭雪軒集』에 실리지 않은 시 두 편을 소개하였다. 이수광은 두 편의 시를 소개하면서 시가 너무 방탕하여 『蘭雪軒集』에서 빠졌다

13) 李德懋, 『靑莊館全書』 제63권, 『天涯知己書』 ‘筆談’. “蘭公曰, 貴國景樊堂許筠之妹, 以能詩名入中國選詩中, 豈非幸歟. 湛軒曰, 此婦人詩則高矣. 其德行遠不及其詩, 其夫金誠立, 才貌不揚. 乃有詩曰, 人間願別金誠立, 地下長從杜牧之, 卽此可見其人. 蘭公曰, 佳人伴拙夫, 安得無怨.”

고 하였다.

|                          |          |
|--------------------------|----------|
| 맑은 가을 호수물이 벽옥처럼 흐르는데,    | 秋淨長湖碧玉流, |
| 연꽃 우거진 곳에 목란주를 매여 놓고     | 荷花深處繫蘭舟. |
| 물 저쪽에 낭군이 보이자 연밥 따 던지고서, | 逢郎隔水投蓮子, |
| 혹시 누가 봤을까봐 만나절을 부끄러워했네.  | 或被人知半日羞. |

위의 시는 <採蓮曲>으로, 남녀의 정을 나누는 시가 주류를 이룬다. 조선시대 儒者의 시각으로 보면 조숙한 처녀가 해서는 안 될 사랑의 주파수를 던진 것이다. 그러나 한 여성으로서의 보편적 심리로 보면 너무나 정상적인 행위인 것이다. 물가 저편에 멋진 사내가 보이자 연밥 따던 순진한 처자는 그 마음을 숨길 수 없어 자연스럽게 한 행동이기 때문이다. 『詩經』, 『召南』篇, <標有梅>에도 “매실을 따고 있네요, 그 열매가 일곱개만 남았어요. 나를 찾는 여러 선비들은 그 길일에 미칠 것입니다.”<sup>14)</sup>라고 하여, 혼기가 찬 처자가 매실을 따러 왔는데, 이제 거의 다 따서 집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된 것이다. 그 많은 매실은 어느새 7개만 남았다. 이제는 광주리가 넘칠 정도인데, 내 손목을 잡아 줄 입은 나타날 기미도 없다. 『論語』, 『八佾』篇, ‘關雎’章에 “즐거워하면서도 넘치지 않고, 슬퍼하면서도 마음 상하지 않는다.”<sup>15)</sup>라고 한 것처럼, 솔직한 감정을 드러낸 시가 어째서 음탕한 것인가? 민중들이 즐겨 불렀을 <정선 아라리>의 “아 우라지 뱃사공아 배 좀 건너 주게 싸리골 울동박이 다 떨어진다.”라고 비유한 것처럼, 남녀가 자기 짝을 찾는 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의 표현인 것이다. 정선골 처자와 매실 따는 아가씨가 진짜로 관심 있는 것은 동백꽃

14) 『詩經』, 『國風』, 『召南』篇 <標有梅>. “標有梅, 其實七分. 求我庶士, 迨其吉兮.”

15) 『論語』, 『八佾』篇 ‘關雎’章. “樂而不淫, 哀而不傷.”



과 매실이 아니라 언젠가는 만나야 할 자신의 반려자인 것이다. 따라서 난설현의 <채련곡>도 남녀가 가질 수 있는 원초적 본능에 해당되는 것이지, 그 노래가 방탕하거나 음란한 것은 결코 아닌 것이다.

제비는 쌍쌍으로 날아 처마 끝을 날아가는데, 燕掠斜簷兩兩飛,  
 지는 꽃 어지러이 비단 옷 위에 떨어진다. 落花撩亂撲羅衣.  
 신방을 바라보면서 가는 봄을 서글퍼하는 뜻은, 洞房極目傷春意,  
 강남의 풀이 질도록 돌아오지 않는 임 때문이오. 草綠江南人未歸.<sup>16)</sup>

남편 김성립이 신혼 시절 한강 변(약수동 근처) 독서당에서 과거 준비를 했는데, 그때 지어 보낸 시이다. 제비는 쌍쌍이 날고 꽃이 어지럽게 떨어지는 봄날이다. 그런데 임과 함께 해야 할 신혼방은 비워 있고 강남 땅 봄이 다 가도록 임은 돌아오지 않아, 서글퍼다. 유자의 시각으로 본다면, 감히 사대부 집 아녀자가 쓸 수 있는 詩情은 아니다. 그래서 이수광도 방탕에 가까운 시라고 하여 詩集에 실리지 않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아내가 남편을 그리워하는 것은 동서고금의 역사를 보아도 지극히 정상적인 감정의 표현이다. 그래서 孔子도 『詩經』시 311편을 정리하였던 것이다. 공자가 『시경』시를 정리한 이유 중 한 가지는, 부부의 사랑을 노래하기 위해서였다. 만약 남녀의 사랑이 없다면 인류는 멸종하기 때문이다. 聖인이신 孔子도 남녀의 사랑을 강조하였는데, 유독 조선시대 儒者들은 사랑의 의미를 곡해한 나머지 지나친 잣대를 들이댄 면이 없지 않다. 따라서 난설현이 노래한 사랑의 노래는 지극히 정상적이며 한편으로는 장려해야 할 부부 간의 사랑 노래였던 것이다. 이수광이 소개한 위의 시는, 만물이

16) 李睟光, 『芝峯類說』卷十四, 文章部7에는 제목이 <閨怨>으로 전해지고, 중국판 『明時綜』에는 <寄夫江舍讀書>로 전해지고 있음.

소생하는 好時節에 春情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아마도 조선의 유자들은 이 춘정에 특별한 의미를 두어 비난의 대상으로 삼았을 것이다. 그런데 그 춘정의 대상이 남편일 경우는 의미가 달라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조선 시대는 유교의 남존여비 사상의 영향으로 여자가 먼저 남자에게 사랑을 전하는 것은 거의 금기 사항이었다. 그런데 난설현은 선구자답게 자신의 사랑 감정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시를 지었다.

|                     |                       |
|---------------------|-----------------------|
| 첩에게 금비녀 하나 있어요,     | 妾有黃金釵,                |
| 시집올 때 머리애다 꽃고 온 거죠. | 嫁時爲首飾.                |
| 길 떠나는 오늘 아침 입께 드리니, | 今日贈君行,                |
| 천리 길 멀리서도 날 생각하세요.  | 千里長相憶. <sup>17)</sup> |

시적화자는 먼 길을 떠나보내는 입에게 분신과도 같은 금비녀를 주면서 자기를 생각해달라고 당부하였다. 그러면서 “안개 속에 잠긴 장안 파수 언덕의 버들, 길 떠나는 입에게 해마다 꺾어 드리네.”<sup>18)</sup>라고 하여, 다시 돌아오기를 소망하였다. 버드나무는 재생의 능력이 있다. 버들가지를 꺾어다가 아무 곳에 심어도 싹이 난다. 그래서 사랑도 버들가지처럼 시들지 말자는 다짐의 의미가 있다. 당나라 때는 입과 헤어지며 버들가지를 꺾어 이별의 정표로 주는 풍습이 있었다. 난설현도 버들가지에 재회의 염원을 담아 적극적인 이별을 하였다.

난설현은 주변의 사물을 통해 이별의 적극성을 표현한 작품이 많다.

|                    |          |
|--------------------|----------|
| 공령 여울 어구에 비가 막 개고, | 空船灘口雨初晴, |
|--------------------|----------|

17) 『蘭雪軒集』<效崔國輔體>1. 최국보는 중국 당나라 현종 때의 시인으로, 오언절구를 잘 지었다.

18) 『蘭雪軒集』<楊柳枝詞>1. “楊柳含煙灞岸春，年年攀折贈行人。”

무협에 어스름 안개가 깔렸네. 巫峽蒼蒼煙靄平.  
 한스런 건 입을 그리는 마음이 저 밀물 같아서, 長恨郎心似潮水,  
 아침엔 겨우 물러났다 밤이면 생겨나는 것이라오. 早時纔退暮時生.

위의 <竹枝詞>1은 악부시로, 포구의 밀물과 썰물을 통해서 사랑의 감정을 표현한 것이다. 1구와 2구는 주변의 풍경으로 儒者[선비]들도 노래할 수 있는 내용이다. 하지만 3구와 4구는 난설현만의 애정관으로, 낮 동안은 풍경을 보면서 그러저럭 지낼 수 있지만 밤이 되면 임 생각에 견딜 수가 없다는 것이다. 솔직한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선비는 이런 시를 지을 수가 없다.

못가엔 버들잎 몇 남지 않고, 池頭楊柳疎,  
 우물가 오동잎도 저버렸네. 井上梧桐落.  
 주렴 밖에선 가을벌레 울어대는데, 簾外候虫聲,  
 날씨가 차가우니 비단 이불이 얇아요. 天寒錦衾薄.<sup>19)</sup>

위의 시는 아무 감정 없이 풍경만을 제시한 것이다. 가을바람이 불어 오동잎도 떨어지고 가을을 알리는 못벌레들이 울어대는 밤이다. 1구와 2구는 선비도 지을 수 있는 구절이다. 그러나 가을 풀벌레 울고 날씨가 차가울 때 ‘錦衾’이 얇게 느껴진다고 한 것은 난설현의 적극적 애정관만이 표현할 수 있는 표현법이다. 신혼임을 알 수 있는 ‘비단 이불’을 통해, 어느덧 계절은 바꿨지만 임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어, 사랑의 깊이도 자꾸 엷어지는 듯하다. 뿐만 아니라 봉황새가 마주 보게 수 놓여져 있는 아름다운 비단 한 필을 간직하고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먼 길 떠나는 임에게

19) 『蘭雪軒集』<效崔國輔體>2

드리면서 “임의 바지 만드신다면 아깝지 않지만, 다른 여인의 치마감으론 주지 마세요.”<sup>20)</sup>라고 하였다. 그리고 시집 올 때 시부모님께서 주신 황금으로 만든 노리개를, 역시 길 떠나는 임에게 주면서 “먼 길 다니시며 정표로 보아 주세요. 길가에 버리셔도 아깝지는 않지만, 새 연인에게만은 달아 주지 마세요.”<sup>21)</sup>라고, 적극 만류하였다. 질투심은 칠거지악으로 조선 사회의 여성들에게 금기시되던 규범인데, 난설현은 오히려 소중한 물건이지만 버려질지언정, 다른 여인의 손에 넘어 가는 것은 결단코 싫은 것이다. 시기심을 넘어 시대를 거스르는 적극적인 애정관의 한 모습이다.

그러나 떠난 임은 돌아오지 않았나 보다. “비단 띠 비단 치마에 눈물 흔적 쌓여 있어, 한 해 동안 꽃다운 풀 자라건만 왕손을 한탄하네. 아쟁 당겨 강남곡 연주를 마치고 나니, 배꽃이 비처럼 지는 낮 동안 문은 닫혀 있네.”라고 하여, 떠난 임은 새풀이 돌아나는 봄이 되도록 돌아오지 않아, 이화가 비처럼 날리는 날 문이 굳게 닫힌 것처럼 내 마음도 함께 닫혀 있다. 2구의 “一年芳草恨王孫”은 王維의 시 <送別>을 모방한 구절이다. <송별>시 3, 4구에는 “春草年年綠, 王孫歸不歸”라는 구절이 있는데, 후세의 문인들은 임과의 이별 장면에서 이 구절을 많이 차용 내지 모방하였다. 모방하였지만, 표절이라고 쉽게 말하지 않는다. 이미 이 구절은 이별의 대명사로 널리 사용되는 관용구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자기 작품에 새로운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에 몰래 훔쳐 쓴 표절과는 엄연히 차이가 난다. 난설현도 돌아오지 않는 임을 기다리는 마음을 더해 그 구절의 이미지를 모방한 것이다. 이미 알려진 구절의 의미를 차용했기에 시적 의미는 더욱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 자신의 말만 하다 보면 상식적이고 일관적인 서술에 그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왕유의 <송별>시 3, 4구는, 『楚

20) 『蘭雪軒集』<遺興>3. “不惜作君袴, 莫作他人裳.”

21) 『蘭雪軒集』<遺興>4. “願君爲雜佩. 不惜棄道上, 莫結新人帶.”

辭』, 『招隱士』의 “왕손은 떠나가 돌아오지 않는데, 봄풀은 돌아나 무성하구나. … … 왕손이여 돌아와라, 산중에 오래 머물러서는 안 되네.”<sup>22)</sup>를 모방한 것이다. 모방은 하였지만, 新意를 더했다. “산중에서 그대 보내고 난 뒤, 날 저물어 사립문 닫네. 봄풀은 내년에도 푸를 텐데, 그대는 돌아오 시려는지”<sup>23)</sup>라고 하여, 산에 은둔하는 隱士를 산에서 나오게 한다는 『초사』의 내용과, 기약이 있는 봄풀처럼 내년에는 돌아와 주기를 바라는 왕유의 시적 의미는 분명히 차이가 난다. 같은 왕손을 인용한 왕유의 다른 시에는 “향기로운 봄풀은 제멋대로 시들어가도, 왕손(나)은 홀로 (산 속에) 머무를 만하네.”<sup>24)</sup>라고 하여, 『초사』의 내용과 반대로 사용하여, ‘봄풀이 시들어 가도 아름다운 가을에 왕손은 스스로 산중에 남아 살 만하다.’라고 하였다. 이는 시적 의미를 반대로 이용한 경우인데, 이를 점화 작법으로는 翻案法이라 한다. 이처럼 남의 시 구절을 모방하여, 자기의 시 작품에 새로운 의미를 더하는 시작법을 點化라고 한다.

난설현도 봄풀은 이미 돋았는데, 임은 돌아오지 않았음을 한탄한다고 하였다. 『초사』와 왕유의 시 그리고 난설현의 시 등 모두 시적 의미에 있어서 차이가 난다. 각자 모방은 하였지만 원시의 수준에 그친 것이 아니라, 新意를 더하였기에 모두 점화가 되었다고 평할 수 있다. 난설현의 시에는 이런 점화된 시구절이 많다. 따라서 그 점화된 시구절의 전후 의미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표절되었다고 매도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태도이다. 조선시대 이수광도 『지봉유설』에서 난설현의 ‘악부시와 <궁사> 등의 작품이 剽竊되었다.’<sup>25)</sup>고 비난하였다. 그러나 정말 표절된 것인지 아니면

22) 『楚辭』卷八, 『招隱士』. “王孫遊兮不歸, 春草生兮萋萋. … … 王孫兮歸來, 山中兮不可以久留.”

23) 王維, <送別> “山中相送罷, 日暮掩柴扉. 春草年年綠, 王孫歸不歸.”

24) 王維, <山居秋暝> “隨意春芳歇, 王孫自可留.”

25) 李睟光, 『芝峯類說』卷十四, 文章部七. “其他樂府宮詞等作, 多竊取古詩.”

踏襲된 것인지 나아가서 점화된 것인지는 작품 분석을 정밀히 한 후, 판정을 내려야 할 부분이다.

작을 찾는 모습이라든지 떠나는 임에게 자신의 생각을 전하는 난설헌의 적극적인 애정관은 조선 儒者들에게는 음탕한 이미지로 볼일 수 있다. 하지만 한 여자로서 사랑을 희구하는 입장에서는 주체적 자아의 성 결정권으로 얼마든지 사랑을 구할 수 있는 것이다. 한 여성의 개체로서 자신의 주체적 애정관을 표현할 수 있었던 난설헌은 비록 악부시의 형태를 빌려 자신의 애정관을 보이기는 하였지만, 그래도 시대를 앞선 간 애정관이라 할 수 있다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한편으로 못마땅한 남성들에게는 비난의 시선을 보내기도 하였다. “기생집에서 서로 만나, 수양버들에 말을 매놓네. 웃으며 비단옷과 가죽옷을 벗어, 저당 잡고 신풍주를 마시네.”<sup>26)</sup>라고 하여, 무절제한 당대 남성 사회에 대한 조소도 보였다. 이는 남자와 똑같은 욕망과 주체성을 지녔던 한 인간으로서 살고자했던 난설헌의 당당한 자기표현이다. 따라서 난설헌은 적극적인 애정관을 통해 자신의 사랑을 갈구하였으며, 자기 스스로의 인식과 더불어 자신의 위상을 통해, 그 시대의 주류였던 남성 곧 儒者들의 삶과 동등하고자 하는 의식을 지녔던 주체적 자아의 여성이었다.

### 3. 글쓰기를 통한 자기 세계 추구

조선 중기의 난설헌은,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자기 자신의 인식을 통해 자기의 능력을 일깨우고 그 일깨운 능력을 발휘하고자 하였지만, 현실적

표절 문제는 이수광을 비롯하여, 신희·김시양·김만중·홍만중·이덕무 등에 의해서도 제기되었다. 중국의 일부 시인들도 표절된 시구절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26) 『蘭雪軒集』〈相逢行〉2. “相逢青樓下，繫馬垂楊柳。笑脫錦貂裘，留當新豐酒。”

장벽은 높아 오히려 좌절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던 인물이었다. 이런 현실을 벗어나고자 하는 몸부림의 하나로 詩作 활동도 더욱 활발히 하였을 것이다. 그래서 현실에서의 실현 불가능한 상황을 詩文學을 통해 실현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런데 그 시작 활동은 언문이 아니라 漢詩를 택했다는 것이다. 이는 그 예상 독자가 여성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남성 독자를 의식했다는 의미이다. 남성 사대부의 전유물인 한시로 자기의 생각을 펼쳐낸다는 것은 또다른 여성 자아로서의 주체적 행위인 것이다. 따라서 남녀 불평등이라는 현실을 벗어나고자 택한 것이 儒者들의 전유물인 문학 영역을 택한 것이고, 그 전유물의 내용은 이상세계에 대한 동경이었으며, 그 동경은 그의 문학 세계를 이루는 주된 내용이 되었던 것이다.

스무 살 이후의 작으로 보이는 <遊仙詞>는 그의 결혼 생활 이전의 모습을 읽을 수 있는 작품이다.

|                         |          |
|-------------------------|----------|
| 천년의 요지에서 목왕과 헤어지고,      | 千載瑤池別穆王, |
| 잠시 청조로 하여금 유랑을 방문하게 했네. | 暫教靑鳥訪劉郎. |
| 날이 밝아오자 피리 불며 상계로 돌아오니, | 平明上界笙簫返, |
| 시녀들은 모두들 흰 봉황을 탔구나.     | 侍女皆騎白鳳凰. |

위의 시는 <유선사> 87수 중 첫 번째 수이다. 곤륜산에 있다는 천년 된 연못 ‘요지’에서 선녀의 우두머리격인 서왕모가 周나라 목왕을 초대하여 잔치를 열고 날이 밝자 잔치를 파하는 장면이다.<sup>27)</sup> 사랑의 전령사인 靑鳥로 하여금 유랑(한 무제)을 찾게 하고, 밝아오는 새벽녘에 피리 소리 들릴 때 시녀들은 봉황을 타고 떠난다. 그리고 “난새 탄 동자를 따라 서쪽으로 오는 길에 꽃 앞에 선 적송자(신선)에게 예를 올렸다.”<sup>28)</sup>라고 하여,

27) 경기도 박물관 소장, <瑤池宴圖>가 있음.

仙界를 그렸다. “이슬에 회오리바람 불어 上界에 가을이 되자, 옥황께서 높은 五雲樓에서 잔치를 벌이시네. <예상우의곡> 한 곡조에 하늘 바람이 일어나니, 신선의 향기가 흩어져 온 세상에 가득하네.”<sup>29)</sup>라고 하여, 가을에 옥황상제께서 잔치를 벌이니, 그 혜택이 현실세계까지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예상우의곡>은 백거이의 <장한가>에 나오는 양귀비의 춤곡이다. 상왕인 玄宗이 죽은 양귀비를 잊지 못해, 방사를 저승까지 보내자, 漢나라 궁궐에서 사신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잠자던 양귀비가 뛰어나오는 장면을 <예상우의곡>인 춤곡에 비유한 것이다. 난설천도 선계를 백거이의 이미지와 유사하게 그렸다. 이루지 못한 사랑을 신선의 세계에서 이루어 보자는 의식이다. <유선사> 87수, 전체적인 작품 내용은 현실에서 이루지 못한 사랑을 꿈속에 선녀가 되어, 그 추구하고자 했던 이상적인 삶을 상상력으로 그려보는 것이다.

|                   |        |
|-------------------|--------|
| 어젯밤 꿈에 봉래산에 올라,   | 夜夢登蓬萊, |
| 갈파의 용을 맨발로 밟았네.   | 足躡葛陂龍. |
| 신선께서 푸른 옥지팡이 짚고,  | 仙人綠玉杖, |
| 부용봉에서 나를 맞아 주셨네.  | 邀我芙蓉峰. |
| 발 아래로 동해물을 내려다보니, | 下視東海水, |
| 작은 물 한잔인 듯이 보였네.  | 澹然若一杯. |
| 꽃 아래서 봉황이 피리를 불고, | 花下鳳吹笙, |
| 달빛은 황금 술독을 비추네.   | 月照黃金甕. |

<感遇>4로, 꿈속에서 용을 타고 신선이 산다는 봉래산에 올랐다는 것

28) 『蘭雪軒集』<遊仙詞>2. “乘鸞使者西歸路, 立在花前禮赤松.”

29) 『蘭雪軒集』<遊仙詞>84. “珠露金飈上界秋, 紫皇高宴五雲樓. 霓裳一曲天風起, 吹散仙香滿十洲.”



이다. 꽃그늘 아래에서 봉황 피리를 불고 달빛에 비치는 황금 술독이 있는 그곳에서 푸른 옥지팡이를 짚고 있는 신선도 만나고, 아래를 내려다보니 동해가 작은 물 한 잔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이는 현실과 이상세계와의 괴리감을 표현한 것으로, 현실세계에 대한 난설현의 생각을 알 수 있게 한다. 작은 잔의 물처럼 보이는 현실에서는 자신의 이상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이다. 봉래산은 난설현이 동경했던 이상적인 세계로, 봉황이 피리 불고 황금 술독이 있는 곳이다. 그러나 현실은 숨이 막힐 정도로 좁은 곳이면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낼 수도 없는 공간이었다. “오동나무 한 그루가 역양산에 자라나, 차가운 비바람 속에 여러 해 뿔내었네. 다행이 보기 드문 악공을 만나, 베어다가 거문고를 만들었네. 다 만든 뒤 한 가락 타 보았건만, 온 세상이 내 소리를 알아주는 이 없네. 천 년 만에 다시 타 본 <광릉산> 곡조, 앞으로 이 옛 소리 끝내 없어지리라.”<sup>30)</sup>라고 한 것처럼, 잘 자란 오동나무 한 그루가 훌륭한 악공을 만나 멋진 거문고로 재탄생하였는데, 온 세상 사람들이 그 소리의 진면목을 몰라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다. 명품으로 탄생된 오동나무 악기는 난설현 자신일 것이다. 아무도 자신의 재능에 귀 기울이지 않은 세상이 야속하기만 하다. 자신의 재능을 알아보고 붓과 『두보시집』을 보내주었던 둘째 오빠 허봉<sup>31)</sup>은 난설현에게 있어 특별했던 존재였다.

|                        |        |
|------------------------|--------|
| 어두운 창가에는 은촛불 나직이 흔들리고, | 暗窓銀燭低, |
| 반딧불은 높은 지붕을 날아 넘는구나.   | 流螢度高閣. |
| 고요 속에 깊은 밤은 추워지는데,     | 悄悄深夜寒, |

30) 『蘭雪軒集』<遺興>1. “梧桐生嶧陽，幾年傲寒陰。幸遇稀代工，鬪取爲鳴琴。琴成彈一曲，舉世無知音。所以廣陵散，終古聲堙沈。”

31) 허미자, 앞의 책, 48~49쪽, 참조.

|                         |        |
|-------------------------|--------|
| 나뭇잎은 쓸쓸하게 떨어져 흩날리네.     | 蕭蕭秋葉落. |
| 산과 물이 막혀 소식도 뜸하니,       | 關河音信稀, |
| 오빠 생각 이 시름을 풀어낼 수가 없네.  | 端憂不可釋. |
| 청련궁에 계신 오빠를 멀리서 그리워하니,  | 遙想青蓮宮, |
| 텅 빈 산속 담장이 사이로 달빛만 밝아라. | 山空蘿月白. |

위의 시는 <寄荷谷>으로, 西人인 栗谷 李珣를 탄핵했다가 귀양살이 하는 荷谷 許筭에게 부친 시이다. 오빠가 있는 곳을 ‘청련궁’이라 하여, 오빠를 靑蓮居士 李白에 견주면서 함경도 갑산에 謫居하고 있는 오라버니의 안위를 물었다. 오빠 허봉이 그나마 자기의 재능을 알아주고 후원하였기에, 의지할 수 있었던 난설현은 그 오빠마저 멀리 귀양살이를 떠났으니 현실적으로 의지할 곳이 없다. 이런 현실에서 난설현이 선택한 것이 이상 세계에 대한 열망이었던 것이다.

|                         |          |
|-------------------------|----------|
| 난새를 타고 한밤중에 봉래섬에 내려와,   | 乘鸞夜下蓬萊島, |
| 한가롭게 기린수레 타고 향그런 풀을 밟네. | 閒輶麟車踏瑤草. |
| 바닷바람 불어와 벽도화를 꺾어놓았으니,   | 海風吹折碧桃花, |
| 옥쟁반에 신선의 대추를 가득 따 담았네.  | 玉盤滿摘安期棗. |

위의 <步虛詞>는 악부시로, 그 내용이 신선 세계에 대한 것이다. 난새를 타고 신선들이 산다는 봉래섬에 도달하여, 기린 수레도 타고 향초도 밝으며 신선들의 꽃인 복숭아도 꺾고 신선의 과실인 安期の 대추<sup>32)</sup>도 옥쟁반에 가득 담는다. 이처럼 난설현은 신선 세계에 도달하여 신선처럼 행

32) 漢나라 方士 李少君이 武帝에게 ‘仙人 安期生은 수박 같이 큰 대추를 먹고 천년을 살았다’고 말해준 고사를 인용한 것이다. 안기의 대추는 여기서 유래한 말로, 안기생처럼 천 년을 살고 싶은 욕망이다.

동하면서 하늘 위를 걷고 싶은 것이다.

신선의 세계로 인도하는 시도 있다.

|                     |        |
|---------------------|--------|
| 찬란한 봉황새를 타신 신선이,    | 仙人騎綵鳳, |
| 한밤중 조원궁에 내려 오셨네.    | 夜下朝元宮. |
| 붉은 깃발은 바다 구름에 휘날리고, | 絳幡拂海雲, |
| 무지개 옷자락 봄바람에 울리네.   | 霓衣鳴春風  |
| 요지의 봉우리서 나를 맞으며,    | 邀我瑤池岑, |
| 유하주 한 잔을 나에게 권하더니.  | 飲我流霞鍾. |
| 내게 푸른 옥지팡이 빌려 주면서,  | 借我綠玉杖, |
| 나를 부용봉에 오르게 하네.     | 登我芙蓉峯. |

위의 <遭興>6은, 부용봉이라는 신선의 세계로 오르는 장면이다. 어느 날 봉황새를 타고 오신 신선이 붉은 깃발과 무지개 옷자락을 봄바람에 휘날리고 곤륜산 연못에서 나를 영접하면서 신선주까지 하사하였다. 그리고 신선의 상징인 푸른 옥장까지 빌려 주면서 신선들의 공간인 부용봉에 가자고 한다. 그런데 이 시는 ‘나’가 주체이다. ‘我’가 4번이나 반복적으로 사용되어,<sup>33)</sup> 신선이 나를 맞으며 신선주를 나에게 권하고 나에게 옥장을 빌려주면서 나를 부용봉에 오르게 하였다. 나를 중심에 두고 이상을 꿈꾸고 있는 것이다. 남녀 차별이라는 성차별의 질곡 사회인 닫힌 조선 사회로부터 벗어나고픈 소망을 난설현은, 이처럼 자신의 글쓰기로 극복하였다. 글 속에서는 자신이 주체이고 자신의 소망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글쓰기란 자신을 규제하는 여러 관습들을 뛰어넘을 수 있게 하면서, 한편으로는 자기 합리화를 이룰 수 있게 한다.

33) 車玉德, 앞의 논문, 52쪽; 김복순, 앞의 논문, 50~51쪽 참조.

|                                 |          |
|---------------------------------|----------|
| 구슬꽃 산들바람 속에 파랑새가 날아오르는 사이,      | 瓊花風軟飛青鳥, |
| 서왕모는 기린 수레 타고 봉래도로 향하시네.        | 王母麟車向蓬島. |
| 난초 깃발 꽃술 장식 장막 드리워진 흰 봉황 수레 타고, | 蘭旌藥輦白鳳駕, |
| 미소 지으며 난간에 기대어 향기로운 풀꽃을 뜯으시네.   | 笑倚紅闌拾瑤草. |
| 하늘에서 바람 불어와 파르스름한 무지개 치마가 훑날리고, | 天風吹擘翠霓裳, |
| 옥고리와 옥패몰이 부딪쳐 청아한 소리 울려 퍼지네.    | 玉環瓊佩聲丁當. |
| 달나라 선녀들 둘씩 짝을 지어 아름다운 비파를 연주하니, | 素娥兩兩鼓瑤瑟, |
| 계수나무 위에서는 봄 구름 향기가 감도네.         | 三花珠樹春雲香. |
| 동틀 무렵에야 부용각 잔치는 끝나고,            | 平明宴罷芙蓉閣, |
| 푸른 바다의 푸른 옷 입은 동자는 白鶴을 오르네.     | 碧海青童乘白鶴. |
| 자줏빛 피리 소리에 오색 노을이 걷히자,          | 紫簫吹徹彩霞飛, |
| 이슬 젖은 은하수에 새벽 별이 떨어지네.          | 露濕銀河曉星落. |

위의 <望仙謠>는 신선들의 땅인 봉래도와 부용각에서 열린 신선 세계의 잔치를 묘사한 시이다. 현실에서 누리지 못하는 세속적 부귀영화도 난 설현은 그의 문필 끝으로 녹여내고 있다. 선녀의 우두머리격인 서왕모는 곤륜산 꼭대기에 살고 있는데, 오늘은 신선 세계에 잔치가 열려 봉래섬 부용각에 선녀들이 모여들고 있다. 그 모여드는 장면은, 화려한 장식을 한 수레를 타고 불로장생을 할 수 있다는 瑤草를 뜯고, 푸른 무지개 색깔의 치마가 바람에 날리니 옥고리와 노리개가 부딪쳐 청아한 소리까지 들리는 곳으로 묘사되었다. 그리고 달나라 선녀들은 쌍쌍이 거문고를 연주하고 계수나무 위에서는 봄 구름 향기가 감돈다. 어느 새 날이 새니 신선 세계의 잔치는 끝이 나고 푸른 옷을 입은 동자 신선들도 학을 타고 사라진

다. 밝아오는 아침에 홀로 남은 시적화자는 신선세계에 합류할 수 없어, 이슬 젖은 은하수에 눈물을 삼킨다. 여전히 상상 속에서 그려지는 동경의 세상이다. 난설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꿈을 그의 지적 능력인 글쓰기를 통해 실현시켰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난설헌은 조금이나마 현실적 위안을 받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이슬 젖은 은하수에 별이 떨어지는 곳이다.

난설헌은 상상으로만 보상받고자 한 것이 아니라, 조선시대 현실적으로 금기시된 再嫁를 꿈꾸기도 하였다.

|                                                                                             |                                              |
|---------------------------------------------------------------------------------------------|----------------------------------------------|
| 직녀가 혼자 사는 것을 한스럽게 여겨,<br>황제께서 허상서에게 시집가게 하였네.<br>오색적삼과 옥띠로 조회에 늦었으나,<br>웃으며 청룡 타고 하늘로 올라가네. | 西漢夫人恨獨居,<br>紫皇令嫁許尚書.<br>雲衫玉帶歸朝晚,<br>笑駕青龍上碧虛. |
|---------------------------------------------------------------------------------------------|----------------------------------------------|

<遊仙詞>17로, 서한부인 곧 직녀의 再嫁를 묘사한 시이다. 서한부인이 홀로 살아가는 것을 한스럽게 여긴 옥황상제가 허상서에게 시집갈 것을 명한다는 내용이다. 명을 받은 서한부인은 치장하느라 조회도 늦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웃으며 청룡 타고 하늘로 올라간다. “仙童의 청상과 부가 천년이나 혼자 살다가, 천수선랑과 좋은 인연 맺었네. 하늘 풍악이 처마 밖 달밤에 울리고, 북궁의 선녀가 주렴 앞까지 내려왔네.”<sup>34)</sup> 천년 동안 과부로 살던 선녀의 시녀가 천수호에 사는 신선 남자에게 다시 시집을 간다는 것이다. 시집가는 동안 달빛이 빛나는 하늘에서 풍악 소리 들리고 왕후의 궁정에서 선녀들이 나와 반갑게 맞이하고 있다. 난설헌 당시 조선

34) 『蘭雪軒集』<遊仙詞>37. “青童孀宿一千年，天水仙郎結好緣。空樂夜鳴簷外月，北宮神女降簾前。”

사회는 여성들에게 내외법이라 규정하여, 일절 문 밖 출입을 제한하였다.<sup>35)</sup> 그런데 난설현은 <유선사>에서 자유롭게 신선들과 교류하면서 대접까지 받는다. 뿐만 아니라 금기시 되었던 再嫁까지도 허용하는 것으로 그렸다. 닫힌 조선 사회의 탈출구는 이렇듯 상상의 공간에서만 가능하였다.

현실에서의 난설현은 “집이 장간 마을에 있어, 장간 길을 오가곤 했죠. 꽃을 꺾어 낭군에게 물어보기를, 어떤가요? 첩이 예뻐요? 꽃이 예뻐가요?”<sup>36)</sup>라고 묻고 싶은데, 임은 존재하지 않았다. “간밤에 느닷없이 남풍이 일어, 배의 깃발은 파수를 향했다오. 북녘에서 온 사람을 만나 물으니, 입게서는 양주에 계신다고 하네요.”<sup>37)</sup>라고 한 것처럼, 지난밤에 남풍이 불어 좋은 소식을 기대했는데, 길손은 입이 양주에 계신단다. 역시 임의 부재로 인한 슬픔이다. 난설현도 <장간행>1에 나오는 시적화자처럼 일상에서 누리는 소소한 행복을 꿈꾸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작은 소망마저도 이루지 못하는 불행의 연속이었다. 거듭된 친정 식구들의 비보 곧 친정아버지의 죽음과 둘째 오빠의 귀양살이 후의 죽음, 그리고 자신의 딸·아들의 요절, 남편과의 불화설 등 시대에서의 행복하지 못한 결혼 생활

35) 조선의 법전인 『經國大典』은 여성들의 외출·개가금지 등을 법제화하였다. 그리고 15세기 후반, 成宗대에 와서 여성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다. 성종 7년(1475)에 간행된 소혜왕후 한씨가 편찬한 『內訓』에 조선 중기 여성의 구체적 실천윤리가 규정되어 있다. 言行·孝親·婚姻禮節·부부의 도리에 관한 禮·모성에 대한 母儀·友愛·청렴과 김소함 등 7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혼인의 예에서 ‘남자는 장가든다는 법은 있으나, 여자는 다시 시집간다는 기록은 없다.’고 하였으며, 『再嫁女子孫禁銅法』을 제정하여 재혼을 막았다.

36) 『蘭雪軒集』<長干行>1. “家居長干里, 來往長干道. 折花問阿郎, 何如妾貌好.” 난설현의 재기 발랄함이 전해지는 시이다. 현대 젊은 남녀의 사랑의 속삭임으로 “자기야 내가 예뻐? 꽃이 예뻐?” 귓가에 맴돌면서, 현대시의 한 구절처럼 느껴진다.

37) 『蘭雪軒集』<長干行>2. “昨夜南風興, 船旗指巴水. 逢着北來人, 知君在揚子.”李白의 시에도 <장간행> 두 수가 있다. 그런데 제목만 유사하지 그 내용은 많이 다르다. 특히 <장간행>1수는 의미가 전혀 다르다.

은 그저 꿈을 꾸면 이를 것만 같은 이상세계 곧 신선의 세계를 동경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그 이상세계는 그녀가 이룩한 시문학 속에서만 가능했다. 이렇듯 난설현은 남성 곧 儒者들의 전유물인 한시에 그의 지적 능력을 입혀 자신이 추구하고자 했던 세상을 그려내었다. 비록 당대 여성 의식의 변화는 이끌지 못했지만, 한 여성으로서 억압받는 환경 속에서 문학의 양식을 통해 보여 준 그의 시문학은 그가 보여줄 수 있었던 처절한 몸부림일 수도 있다. 따라서 자신의 능력을 통해 그의 현실적 불행을 극복하고자 했던 난설현은 당시 사회적 분위기로 보아 시대를 앞서 간 지성인의 면모를 보여준 작가임에는 틀림이 없다. 난설현의 이와 같은 글쓰기는 남성 권위의 사회 담론에서 억압받고 은폐되었던 여성성을 회복하는 주제적 삶과 육체적 삶을 긍정하는 삶의 본보기로서 곧 능동적 주체로서의 새로운 글쓰기의 한 단면을 보여주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 4. 烈士의 氣風

참된 선비[儒者]는 세상이 어지러우면 현실 정치를 떠나 산림에 은거하기도 한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현실 정치에 무관심한다거나 은둔을 작정한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 혹시라도 능력이 미치지 못할 경우 더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기에 세상이 맑아지기를 기다린다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 그러면서 자연을 노래하기도 하고 그 자연 속에서 참된 수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심신을 단련하기도 한다. 그래서 참된 선비는 그의 문학에서 賞自然의 상태만을 노래하는 도피적 삶의 형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憂國之情과 戀君之情 등을 아울러 노래하기도 한다. 난설현도 현실적 상황에 절망 아닌 절망에 당면했을 것이다. 때로는 사회적 관습에,

때로는 남녀 차별이라는 성차별에 직면하여 그 어려운 상황을 타계할 목적으로 시문학을 지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지 그의 시문학에는 선비적 기질이 감지되는 작품이 있다. 茶山 丁若鏞이 유배지에서 아들 學淵에게 보낸 편지에 “임금을 사랑하고 나라를 근심하지 않는 것은 시가 아니고, 시대를 아파하거나 풍속을 분히 여기지 않는 것은 시가 아니며, 찬미하고 풍자하고 (선을) 권장하고 (악을) 징계하는 意義가 없으면 시가 아니다.”<sup>38)</sup> 라고 하여, 시를 짓는 목적을 밝힌 부분이 있다. 남동생 허균이 누나 난설현이 죽은 다음 해, 『유고시집』을 내고자 西厓 柳成龍에게 발문을 부탁하였는데, 그 발문에 난설현을 “그 사물을 보고 정감을 불러일으키며 시절을 근심하고 풍속을 민망히 여김에 있어서는 이따금 烈士의 풍모가 있다.”<sup>39)</sup>라고 평한 구절이 있다. 이는 난설현의 시에 선비적 기품이 느껴지는 작품이 있다는 것이다. 士란, 道를 배워 행하고 벼슬한다든지 하여 세상에 道를 펴는 것을 목표로 삼는 사람이다. 그런데 난설현은 처음부터 여자라는 성차별적 요소로 인해 出仕는 꿈도 꿀 수 없을 뿐만 아니라 道를 펼 기회조차 얻을 수가 없었다. 그런 사회적 배경 하에서 西厓는 ‘烈士風’이라는 평을 하였다. 烈士란, 『論語』에서 孔子가 말씀한 “널리 대중을 사랑하되 어진 사람을 가까이 한다.”<sup>40)</sup>라고 한 것처럼, 어진 사람을 가까이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본받고자 노력하고 백성의 근심을 잊지 않는 선비정신과도 통하는 점이 있다.

온 사람이 일제히 달구를 들고,

千人齊抱杵,

38) 丁若鏞, 『與猶堂全書』第一集, 第二十一卷, 『寄淵兒』. “不愛君憂國, 非詩也, 不傷時憤俗, 非詩也, 非有美刺勸懲之義, 非詩也.”

39) 柳成龍, 『西厓集』, 『跋蘭雪軒集』. “至其感物興懷憂時閔俗, 往往有烈士風”

40) 『論語』, 『學而』篇, 『弟子』章. “汎愛衆而親仁.”



|                      |        |
|----------------------|--------|
| 땅을 다지니 땅 밑까지 크게 올리네. | 土底隆隆響. |
| 힘들여 잘 쌓았지마는,         | 努力好操築, |
| 운중 땅의 위상 같은 인물 없구나.  | 雲中無魏尙. |

|                      |        |
|----------------------|--------|
| 성을 쌓고 또 성을 쌓으니,      | 築城復築城, |
| 성이 높아 도적을 막을 수는 있네.  | 城高遮得賊. |
| 다만 두려운 것은 적이 많이 온다면, | 但恐賊來多, |
| 성이 있어도 막지 못할 것이네.    | 有城遮未得. |

위의 시는 <築城怨 二首>이다. 악부체의 하나인 ‘怨’의 형식으로, 성 쌓는 민중의 고달픔과 집권층의 德 없음을 풍자하였다. 민중을 동원하여 혹독한 노동의 대가로 성을 쌓기는 하지만 수많은 적들이 몰려오면 높은 성도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이다. 地理가 人和만 못하기 때문이다. 漢나라 文帝 때 雲中 태수로 지낸 魏尙은 德이 있어 그의 군졸들을 잘 돌보아서 좋은 시절을 보낼 수 있었는데, 난설현 당대의 집권층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운중 태수 위상은 자기의 녹봉으로 군졸을 위한 음식 값을 대신하면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였으며, 그 사랑을 받은 민중들은 보답으로 흉노들이 운중의 요새를 침략하는 것을 사전에 막을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위의 시에서 집권층은 민중을 동원하여 높은 성만 쌓을 줄 알았지 雲中같이 덕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人和의 중요성을 통한 집배계층의 풍자이면서 憂國之情의 心思로, 나라의 안위가 높은 성을 쌓는 것만으로 부족하다는 것이다. 난설현은 외부의 적도 무서운 존재이지만 내부의 민심을 얻는 것도 중요하다는 정치적 안목까지 보였다.

|                 |        |
|-----------------|--------|
| 봉화가 황하에 길게 비치니, | 烽火照長河, |
| 군졸들이 중원 집을 떠나네. | 天兵出漢家. |

창을 베고 흰 눈에서 자며,  
말을 몰아서 사막에 다다르네.  
북풍에 딱따기 소리 전해오고,  
오랑캐 소식 호적에 들려오네.  
해마다 잘 지키지만,  
전쟁에 끌려 다니기 괴롭네.

枕戈眠白雪,  
驅馬到黃沙。  
朔吹傳金析,  
邊聲入塞茄。  
年年長結束,  
辛苦逐輕車。

어젯밤 파발이 날아들어,  
용성이 포위됐다 기별하네.  
호적 소리 눈보라에 울려 퍼져,  
칼 차고 금미산을 내달리네.  
오랜 전쟁 생활에 몸은 이미 늙어,  
먼 출정에 말 또한 앙상하네.  
사나이의 의기는 소중한 것이라,  
부디 하란의 목 절고 개선하소서.

昨夜羽書飛,  
龍城報合圍。  
寒茄吹朔雪,  
玉劍赴金微。  
久戍人偏老,  
長征馬不肥。  
男兒重義氣,  
會繫賀蘭歸。

위의 <出塞曲 二首> 역시 악부체이다. 出塞는, 군사들이 변방으로 출정하면서 부르는 노래라는 뜻이다. 봉화가 올라 군졸들이 자신의 집을 떠나야 하는 장면을 시각화하였다. 전쟁터로 내몰린 군졸은 창을 베개 삼고 눈 위에서도 잠을 자야만 한다. 그리고 때로는 말을 몰아 고비 사막까지도 내달려 가야 하는 고달픔의 현장이다. 변방의 순찰 도는 딱따기 소리와 오랑캐가 부는 호드기 소리를 들으면서 언제까지 전쟁터로 내몰려야 하는지 괴롭기만 하다. 그런데 어제 밤 용성이 함락 위기에 있다는 소식에, 호기롭게 말을 타고 아미산으로 달려간다. 그러나 이미 늙어, 결과는 미지수이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시적화자는 흉노의 추장인 하란의 목을 베어 개선하라고 격려하였다. 수자리 지키는 군졸들의 고달픔이 묻어나는

시이다. “임조에서 전쟁 끝나니 패한 말이 울고, 패잔병 호각소리에 따라 빈 병영에서 자네. 회중에는 변방이 근래에 무사하다 전갈오지만, 해 저물자 평안성에 봉화가 오르네.”<sup>41)</sup> 변방 지역인 감숙성 임영의 패잔병들의 모습이다. 전쟁이 나면 가장 많은 피해를 입는 대상은 병졸들이다. 그나마 목숨을 유지한 채 패잔병들이 돌아오는 길에, 회중은 무사하다는 말을 듣고 어느 정도 안심이 되었다. 하지만 해 떨어지자 평안성에서 또 봉화가 올라 전쟁의 다급함을 알리고 있다. 다시 전쟁터로 내몰리는 패잔병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묻어난다.

|                       |        |
|-----------------------|--------|
| 먼지 낀 거울이라 난새도 춤추지 않고, | 鏡暗鸞休舞, |
| 빈집 같아 제비도 돌아오지 않네.    | 樑空燕不歸. |
| 축의 비단 이불에 향은 남아 있어,   | 香殘蜀錦被, |
| 눈물이 하염없이 비단 옷을 적시네.   | 淚濕越羅衣. |
| 꿈은 난초 물가에 헤매고,        | 楚夢迷蘭渚, |
| 형주의 구름은 대궐을 감돌겠지.     | 荊雲落粉闈. |
| 서강의 오늘 밤 달도,          | 西江今夜月, |
| 달빛을 보내 아미산을 비추리라.     | 流影照金微. |

위의 시는 <效李義山體 二首> 중, 제1수이다. 李義山은 晚唐 때 시인 李商隱(813~858)이다. 난설현이 이상은의 시체를 본받아 쓴 시라는 것이다. 임이 떠난 집은 마치 빈 집 같아 제비도 오지 않고, 나는 거울도 보지 않아 먼지가 낄 정도이다. 임과 내가 함께 덮고 자던 비단 이불은 그 래도 임의 체취가 남아 있는 듯해, 자꾸 눈물이 난다. 꿈은 楚나라 懷王의 꿈 인양 난초 물가를 헤매고, 형주의 구름은 내 마음같이 尙書省을 두르고

41) 『蘭雪軒集』<入塞曲> 5수 중 제1수. “戰罷臨洮敗馬鳴, 殘軍吹角宿空營. 回中近報邊無事, 日暮平安火入城.”

있다. 내가 보고 있는 장강의 저 달은 임이 있는 아미산을 비추고 있다.

달은 입과 나와의 관계를 이어주는 매개체이다. 서로 다른 공간에서 달을 매개체로 하여 서로의 안부를 물을 수 있기 때문이다. 두보가 <月夜>에서 부주에 있는 아내를 그리워할 때 장안의 달을 보고 ‘부주의 있는 아내도 저 달을 보고 있을 것이다’라고 한 것처럼, 안휘성 채석기 근처인 장강가에 있는 아내도 저 달을 보면서 외몽고 지역의 아미산 변방에 있는 입을 그리워하고 있다. 변방에 수자리 간 남편을 그리워하는 규방 아내의 심정을 노래한 것이다.

수자리 보는 군졸들의 모습이 담긴 시와 규방에서 아내들이 수자리 보는 남편을 그리워하는 변새시를 통해 난설현은 당시의 소외된 계층들에게 관심을 보였다. 이와 같은 그의 시작 태도는 민중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승화시킨 결과라 할 수 있다. 비록 의고악부의 형식적 모방을 통해 자신의 세계를 보였다는 한계점은 있지만, 현실의 고통 받는 민중들을 소재로 노래할 수 있었다는 것은 난설현이 지닌 문학적 특징의 하나이다. 이런 난설현의 태도가 서애가 평한 대로 ‘사물을 보고 정감을 불러일으키며 시절을 근심하고 풍속을 민망히 여긴다.’고 한, 烈士의 풍모가 느껴지게 하는 시이다.

수자리 보는 병사들과는 또다른 궁녀의 비애를 다룬 <宮詞>시 20수가 있다. 화려할 것 같은 궁녀들의 삶을 오히려 폐쇄적 공간에 갇힌 삶으로 그린 <궁사>는, 어쩌면 조선 사회의 여성들의 삶을 가탁한 듯한 느낌을 준다.

|                        |          |
|------------------------|----------|
| 새로 기르는 앵무새 아직 길들지 않아,  | 鸚鵡新調羽未齊, |
| 새장에 가두어 옥루를 향해 깃들게 하네. | 金籠鎖向玉樓棲. |
| 한가로이 푸른 머리 돌려 주렴에 기대서, | 閑回翠首依簾立, |

도리어 군왕께 농서 지방 말로 대하네.

却對君王說隴西.

<宮詞>4로, 궁녀를 앵무새에 비유한 시이다. 조롱에 갇힌 앵무새처럼, 궁녀도 궁중에 갇힌 존재이다. 그의 삶은 군주의 관심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새로 간택된 궁녀가 군주를 모시니, 비단 병풍 둘러치고 처음 함환향 하사받네. 다음날 아침 아감이 와서 묻기에, 웃으며 앞가슴의 노리개 다발 가리켰네.”<sup>42)</sup> 새장 속에 갇혀 살던 궁녀도 군주의 사랑을 받으면 하루아침에 신분이 상승된다. 그 벽찬 감격을 앞가슴 노리개로 극대화시켰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오로지 한 사람만을 위해 온갖 정성을 다해야 하는 궁녀의 이면을 보여주었다. 이는 조선 사회 대부분의 여성들이 처한 현실이기도 하다. 유교적 덕목으로 무장된 법규는, 조선의 여인들이 마치 새장 속에 갇힌 앵무새처럼 자기 결정권의 자유도 없게 만들었다. 오직 한 사람의 사랑에 따라 인생의 부귀영화가 결정된다는 궁녀와 조선시대 여인들의 삶은 별반 다르지 않다.

난설현은 가난하고 소외된 계층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졌다.

어찌 용모가 남보다 빠질까마는

豈是乏容色,

바느질과 길쌈도 곧잘 한다네.

工鍼復工織.

어려서 가난한 집안서 자라다보니,

少小長寒門,

노련한 중매쟁이도 알아보지 못하네.

良媒不相識.

위의 시는 <貧女吟> 3수 중, 제1수이다. 이 <빈녀음>도 악부시이다. 당시 여인의 덕목인 인물 좋고 길쌈도 잘하지만, 오직 집안이 가난해서

42) 『蘭雪軒集』<入塞曲> 20수 중 제17수. “新擇宮人直御床, 錦屏初賜合歡香. 明朝阿監來相問, 笑指胸前小佩囊.”

좋은 중매자리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가난한 여인의 한스러움은 베짜기로도 나타나는데, “밤 깊도록 쉬지 않고 길쌈하니, 철컹철컹 베틀 소리 차갑기도 하네. 베틀에 감겨진 한 필의 옷감, 결국 누구의 옷이 되려나?”<sup>43)</sup>와 같이, 밤을 새워 짜는 이 옷감도 나의 옷을 만들기 위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 베틀 소리마저도 처량하게 들린다.

|                    |        |
|--------------------|--------|
| 손에 가위를 잡았으나,       | 手把金剪刀, |
| 밤이 차서 열 손가락 곱아지네.  | 夜寒十指直. |
| 남을 위한 혼수만을 지을 뿐이니, | 爲人作嫁衣, |
| 해마다 독수공방이라네.       | 年年還獨宿. |

<貧女吟> 3수로, 추운 겨울 밤 손이 시리도록 혼수를 만들지만 정작 자신을 위한 혼수는 아니다. 그것도 해마다 반복되는 현실 앞에 늘 새우잠이다. 난설현은 가난한 여인의 탄식을 통해 소외 계층에 대한 연민을 드러내었다. 비록 의고시를 모방한 현실 사회의 고발이라는 한계점은 있지만, 한쪽이 닫힌 사회에서 고발 의식을 드러낸 난설현의 시작 태도는 서애가 평한 烈士의 풍모가 담긴 것이다. 이것이 당시의 풍속과 민중의 삶이기 때문이다. “동쪽 집의 세도가 불길처럼 드세던 날, 드높은 다락에 선 노래 소리 울렸지. 북쪽의 이웃 가난해 입을 옷 없고, 주린 배를 안고 서 초막 안에 있네.”<sup>44)</sup>라고 하여, 동쪽의 부잣집과 북쪽의 가난한 집의 대비를 통해 당시 빈부 격차의 사회상을 고발하였다. 난설현은 소외 계층들에 대한 詩作 활동을 통해 그들에 대한 애정도 함께 지녔을 것이며, 그들의 삶이 조금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도 내포하고 있었을 것이다. 뿐만

43) 『蘭雪軒集』<貧女吟> 3수 중 제2수. “夜久織未休, 戛戛鳴寒機. 機中一匹練, 終作阿誰衣.”

44) 『蘭雪軒集』<感遇>3 “東家勢炎火, 高樓歌管起. 北隣貧無衣, 枵腹蓬門裏.”

아니라 가련한 미물에게도 동정의 시선을 보냈다. “옷상자 안 비단을 가위로 잘라, 겨울 옷 재단하느라 손이 곱아 호호 부네. 옥비녀 뽑아 등잔 그림자 가에서, 등잔 심지 제거하자 날아드는 부나비 구하네.”<sup>45)</sup>라고 하여, 외롭고 손까지 시린 밤에 바느질하다 등잔불로 날아드는 나방도 가여워 구해준다는 내용이다. 비록 남을 위해 혼수를 짓지만 원망보다는 나보다 못한 대상들에 대한 연민의 눈길을 보낸다. 이는 미물까지도 측은히 여기는 애정은 어진 마음과 진실되고 인정이 두터운 마음에서 나온 惻隱之心으로, 溫柔敦厚한 실속이 있는 것이다.

茶山이 『寄淵兒』에서 “不愛君憂國，非詩也.”라고 한 것처럼, 난설현도 판단력이 부족한 왕에게는 일침을 놓았다. “머나먼 갑산으로 귀양 가는 나그네, 함경도로 가는 행색 황망하네요. 신하는 가태부이지만, 군주는 어찌 초 회왕이리오.”<sup>46)</sup>라고 하여, 귀양 가는 오빠 허봉을 충신 賈誼(B.C.201~B.C.168)에 비유하였고, 귀양을 보낸 군주 宣祖는 전국시대 楚나라 懷王에 견주었다. 漢나라 가의가 조정의 모함을 받고 長沙로 좌천되어 가던 도중, 초나라 屈原(B.C.343~B.C.277)의 죽음을 애통하게 여겨 <弔屈原賦>를 지어 굴원을 애도하면서 자신을 굴원에 비유하였다. 지금 허봉이 한나라 조정에 충언을 올리고 장사로 좌천되어 가면서 떡리수에 글을 던져 굴원을 조문한 가의와 같은 존재라는 것이다. 그런데 선조는, 회왕이 충신 굴원의 충언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간신들의 말을 믿은 것처럼, 지금 상황이 걱정스럽다는 것이다. 사마천이 <屈原列傳>에서 “안으로는 미인 鄭袖에 미혹되고 밖으로는 秦나라 張儀에게 속아서

45) 『蘭雪軒集』<夜坐> “金刀剪出篋中羅，裁就寒衣手屢呵。斜拔玉釵燈影畔，別開紅焰救飛蛾。”

46) 『蘭雪軒集』<送荷谷謫甲山> “遠謫甲山客，咸原行色忙。臣同賈太傅，主豈楚懷王。”

굴평(굴원)을 멀리하고 상관대부와 영운 자란을 신임하여 군사는 꺾이고 땅은 깎여서 그 여섯 고을을 잃고 몸은 秦나라에서 객사하여 천하의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이는 사람을 알아보지 못한 데서 온 재앙이다.”<sup>47)</sup>라고 한 것처럼, 조선에도 왕의 무능력으로 재앙이 올까 두려운 것이다. “어찌 하여 오동나무 가지에는, 도리어 올빼미와 솔개만 깃드는가?”<sup>48)</sup>라고 한 것처럼, 봉황이 깃들어야 할 오동나무에 올빼미와 솔개만 우글거린다고 하여, 조정에 인재가 없음을 탄식하였다. 권력의 정점인 군왕과 조정을 힐책하는 듯한 표현을 한 난설헌은 憂國之情을 지닌 烈士였다.

소외 계층에 대한 관심에 대한 시 창작 태도는 朱子가 『詩集傳序』에서 “시대를 민망히 여기고 풍속을 가슴 아프게 여긴다.”<sup>49)</sup>라고 평한 바와 같이, 사람의 도리를 다하고 소외된 계층들에 대한 관심과 時俗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善政을 찬미하고 포악한 정치를 풍자하며, 옳을 권장하고 옳을 징계하고자 하는 마음의 참된 비판정신을 지니는 것이 시 짓는 사람으로서 먼저 간직하지 않으면 안 될 중요한 기본자세이면서 기준인 것이다. 茶山이나 西厓가 밝힌 ‘傷時憤俗’과 ‘憂時閔俗’의 詩 이론은, 시를 짓는 사람이 『시경』시가 끼친 뜻 곧 思無邪<sup>50)</sup>한 시 정신으로 두터운 인정을 드러내어 인류의 道를 밝히고자 한 뜻을 잘 이어받아, 사람의 도리를 다하고 시대를 가슴 아파하거나 풍속을 분히 여기고 백성들의 이품을 잊지 않는 것을 바탕으로 하여 시를 지어야 한다는 것이다.

난설헌의 시에도 민중들의 고달픈 삶을 그들의 시각에서 노래한 시가

47) 司馬遷, <屈原列傳> “內感於鄭袖, 外欺於張儀, 疏屈平而信上官大夫, 令尹子蘭, 兵挫地削, 亡其六郡, 身客死於秦, 爲天下笑, 此不知人之禍也.”

48) 『蘭雪軒集』<遺興>2. “奈何梧桐枝, 反棲鴟與鳶.”

49) 朱熹, 『詩集傳序』. “閔時病俗之所爲.”

50) 思無邪는 『論語』 『爲政』篇에 나오는 말로, 작시자의 태도가 생각함에 邪辟함이 없이 순수하다는 뜻이다.



있었다. 그래서 西厓도 烈士의 풍모가 있다고 한 것이다. 동북으로 작은 오빠인 허봉이 두보의 시집을 선물하였다고 하였는데, 그 두보의 시에는 시대상이 잘 반영되어 있다. <自京赴奉先縣詠懷五百字>·<北征>·<石壕吏>·<新安吏>·<潼關吏>·<新婚別> 등의 많은 작품이 모두 시대의 아픔을 노래한 것으로, 두터운 인정을 곡진하게 드러낸 경우의 시들이다. 이들 작품은 두보가 안녹산의 난 때 겪은 일들을 담담하게 그려낸 것으로 억지로 꾸미고자 하는 별다른 기교 없이 탁월한 시적 재질을 보여준 것들이다. 그러한 점에서 두보의 시는 『詩經』의 시가 찬미하고 풍자하는 가운데 사람의 마음을 감흥시키는 것을 시의 본령으로 삼는 ‘思無邪’하다는 사실과 부합될 수 있는 것이다. 두보의 시집을 읽은 난설현도 그의 시에서 思無邪의 경지를 찾을 수 있는데, 그것이 烈士의 풍모를 지녔다고 평한 시들이 대상이 될 수 있다. 소외된 계층 곧 성 쌓는데 동원된 백성, 가난한 직녀와 간혀 사는 궁녀 그리고 수자리 서는 병졸과 집안에 남은 부인들의 생활상을 아무 꾸밈없이 노래한 邊塞詩는 그 시대의 풍속을 가슴 아프게 하면서도 읽는 사람의 감정을 흥기시킬 수 있다. 그래서 烈士의 풍모를 지닌 시인도 될 수 있는 것이다.

## 5. 結論

남자들과 똑같은 주체성과 욕망을 지닌 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고자 했던 난설현, 그는 글쓰기라는 知的 활동을 통해 그의 삶의 행적과 이상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그래서 그의 작품에는 당대 여성들이 감히 꿈도 꾸지 못했던 적극적 애정관이 곳곳에 표현되었다. 여성이 먼저 남성에게 연꽃을 꺾어 보내기도 하고, 자기의 패물을 다른 여인에게 주지 말 것을

당부하기도 하였다. 또한 아내가 남편을 그리워하고 질투심을 느끼는 것으로 표현된 시가 많았는데, 이는 부부 사이라면 당연지사인 것이다. 그런 당연한 사랑까지도 조선 중기 사회의 주류였던 儒者들은 품지 못하였다. 하물면 아내자가 “함부로 글을 지어 널리 외간에 퍼뜨려서는 안 된다.”<sup>51)</sup> 고까지 하였으니, 글 아는 며느리를 시대에서도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난설헌은 적극적인 애정관을 보여 자신의 삶에 대한 주체 의식을 보였다.

주체적 자아가 강한 여성, 그 자아가 실현되지 않는 시대적 배경임을 안 난설헌은 詩作 활동을 통해 자신의 처지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다시 말하자면, 자기 자신의 구원의 한 방편으로 漢詩를 창작하였던 것이다. 현실에서 실현되지 않는 사랑을 상상이라는 문학적 장치를 통해 다가가고 이루는 성취감을 맛보았던 것이다. 조선 중기의 단헌 유자들의 시각에서 보면, 음탕하면서 신선의 세계를 동경하는 여인으로 비추어질 수 있지만, 오늘 21세기의 시각에서 보면 그의 문학적 표현은 오히려 시대를 앞선 선구자의 면모가 있다. 주류이면서 집권자였던 남성들의 전유물인 漢詩를 통해 적극적이면서 자기만의 사랑 표현과 상상의 날개 짓은 당시 여성들에게서 볼 수 없었던 태도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은 儒者의 관점이 아닌 열린 사고에서 난설헌의 시를 적극적으로 읽어야 할 때이다.

西厓가 난설헌을 평한 ‘烈士의 풍모’는 소외계층들에 대한 관심을 보이면서 당대 현실의 여성으로서의 삶이 부당하다는 고발과 함께 일부 작품에는 憂國之情의 의미도 담겨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이는 朱子の 『詩集傳序』에서 “閱時病俗” 곧 ‘시대를 민망히 여기고 풍속을 가슴 아프게 여긴 것’으로, 민중들로 하여금 인륜의 도를 아는 진실 되고

51) 李德懋, 『靑莊館全書』卷三十, 『士小節』, 卷七 婦儀二. “不可浪作詩詞, 博播外間.”

도 인정이 두터운 백성이 되게 하고 집권자들로 하여금 治者의 도리를 알게 하여, 진실 되고 측은해 하는 어진 마음이 우리나라에 하자는 것이다. 그러면 민중은 인륜의 도를 알게 되고 집권자는 天道를 알아 萬民이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허난설헌이 한시를 통해 드러내고자 한 지향의식은 자기 자신의 주체성 확립과 열사의 품모였다.

남은 과제로, 조선시대부터 거론된 剽竊 문제가 있다. 인용된 시구절도 문맥적 의미에서 그 시적 의미를 따지면서 논할 성질의 것이지, 처음부터 표절이라고 평하는 것은 올바른 비평 태도는 아닌 것이다. 의도적으로 남의 시구절을 훔칠 목적으로 한 것이라면 표절이 되겠지만, 훔칠 목적이 아니라 새로운 의미를 더하기 위해 가져다 쓴 경우라면 사정은 달라지기 때문이다. 新意를 부여하기 위해 남의 시구절을 가져다 쓰는 것을 作法 용어로 點化라고 한다. 점화는, 어느 부분으로부터 점을 찍어 변화를 가져다 작가의 작품에 새로운 의미를 더하는 것이다. 그런데 고금의 작가는 누구나 남의 시작품을 가져다 자기 작품에 빌려 쓸 경우, 새로운 의미를 더하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후세의 독자나 비평가가 보았을 때, 새로운 의미를 드러내지 못하고 前人の 작품을 되뺄아 따르는 수준에 그친다면 蹈襲이라고 혹평한다. 난설헌의 일부 작품도 표절 시비에 휘말려 있다. 이는 작품이 전해지는 그때의 상황 곧 난설헌 死後, 동생인 허균의 기억에 의해 재현된 작품과 그녀의 습작의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 등이다. 어쨌든 시를 짓다 보면, 남의 시구절과 비슷하거나 같을 수도 있다. 그러나 우연히 같아진 것으로 偶同인 경우도 있을 것이고, 點化 내지는 蹈襲인 경우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표절 시비에 걸린 몇몇 작품들도 전체 시 내용 중에서 그 시적 의미를 따져 점화인지 아니면 도습으로 혹평될 것인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표절은 작가의 주체적인 의식 없이 처음부터 남의 작품을 훔쳐 쓰고자 한 것으로 주체적 의식의 작용에 의해

서 이루어지는 점화와 도습과는 차이가 난다.

또한 그녀의 년보에 8세 때 지었다고 하는 <廣寒殿白玉樓上樑文>이 정말 8세 때 지은 작품인지 따져봐야 할 것이다. 그녀가 『太平廣記』를 즐겨 읽어<sup>52)</sup> <광한전백옥루상량문>을 지을 수 있었다고 하였는데, 다소 난해한 의미의 책을 8세의 아이가 정독할 수 있는 능력은 되었는지를 살펴 보면서, 중국으로부터 전해온 說이기에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글을 읽고 선경의 장면을 자유롭게 그릴 수 있는 경지의 글쓰기 능력이 되었는지 등도 살펴보고 난 후, 8세 신동을 평가해야 할 것이다. 허균도 『학산초답』에서 “누님의 시문은 모두 천성에서 나온 것들이다. 遊仙詩를 즐겨 지었는데 詩語가 모두 맑고 깨끗하여, 음식을 익혀 먹는 속인으로는 미칠 수가 없다. 文도 우뚝하고 기이한데 四六文이 가장 좋다. 白玉樓上樑文이 세상에 전한다.”<sup>53)</sup>라고만 했지, 어느 때 지은 작품이라고는 밝히지 않았다. 이런 사실을 미루어 보면, 8세 때 지었다는 <廣寒殿白玉樓上樑文><sup>54)</sup>도 스무 살 이후에 나온 작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스무 살 이후에 지은 <유선사>에 인용된 많은 고사들도 대부분 『태평광기』에서 유래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蓀谷 李達과의 師承관계이다. 허균이 『惺所覆瓿藁』에서 “형

52) 허미자, 앞의 책, 32쪽, 57쪽.

任相元, 『郊居瑣編』卷一. “蘭雪軒許曄女, 喜覽太平廣記, 其大說長辭皆至成誦.”

53) 許筠, 『惺所覆瓿藁』卷二十六, 부록1, 『鶴山樵談』7. “姊氏詩文俱出天成喜作遊仙詞, 詩語皆清冷, 非烟火食之人可到也. 文亦闢奇四六最佳, 白玉樓上樑文傳于世.”

54) 명나라 말과 청나라 초기를 살았던 錢謙益(1582~1664)이 『列朝詩集』에서 처음으로 밝힌 내용이다.(허미자, 앞의 책, 155쪽, 참조.)

전격의는 『列朝詩集』에서 허난설현이 8세에 『광한전백옥루상량문』을 지었다고 하면서, 남편 김성립이 순국하자 女道士가 되었다고 하였다. 김성립은 임진왜란시 의병으로 참전하여 행방불명되었지만, 허난설현은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3년 전(1589)에 이미 故人이 되었다. 그러니 여도사가 되었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과 맞지 않는 정보이다. 8세에 『광한전백옥루상량문』을 지었다는 정보도 맹신해서는 안 될 것이다.

님과 누님의 문장은 가정에서 배운 것이다.”<sup>55)</sup>라고 했지, 달리 어느 분의 師承 관계를 언급하지 않았다.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손곡 이달과의 사승 관계를 논하였지만, 이는 정확한 정보는 아닌 듯하다. 허균이 『성소부부고』에서 “중형[許筠]이 謫所로부터 돌아와서 비로소 古文을 가르쳐 주셨으며, 뒤에 문장은 西厓 柳成龍 정승에게서 배웠고, 시는 蓀谷 李達에게서 배우고야 바야흐로 문장의 길이란 여기에 있지 저기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서, 차츰 入門하고자 했으나 시속에 끌린 바 되어 세상에 나가 이미 壯元에 뽑히게 되었다.”<sup>56)</sup>고 한 것처럼, 중형 허봉이 율곡 이이를 탄핵하다가 선조의 노여움을 사 갑산으로 유배된 해가 1583년이고 해배된 해가 1585년이다. 그러면 해배된 후 중형에게 고문을 배운 허균의 나이는 16살이 되고 허난설헌은 이미 결혼을 한 후로 23살이다. 문맥적 의미로 살펴보면 그 후에 문장을 서에 유성룡에게 배웠으며 시는 손곡 이달에게 배웠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이런 사실적 내용을 도외시 한 채 난설헌은 손곡에게 시를 배웠을 것이라는 무모한 주장을 기존 연구자들은 답습하였다. 설령 시집가기 전에 배웠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주장의 논리를 세우기가 만만하지 않다. 난설헌과 허균의 나이 차는 6살이다. 허균이 글공부를 6~7세에 했다.<sup>57)</sup>고 가정하더라도, 난설헌의 나이가 12~3세가 된다. ‘남녀칠세부동석<sup>58)</sup>’이 적용되던 시대<sup>59)</sup>에 그것도 시집가기 1~2년 전에

55) 許筠, 『惺所覆瓿藁』卷十, 『答李生書』. “兄姊之文, 得於家庭.”

56) 許筠, 『惺所覆瓿藁』卷十, 『答李生書』. “仲兄自謫還, 始教以古文, 文從崖相學, 詩從蓀谷學, 方知文章之徑在是不在彼, 稍欲入門, 爲俗累所牽, 出旣聯擢巍第.”

57) 6~7세 경 男兒는 祖父나 父의 생활 터전인 사랑으로 생활의 장을 옮겨 가부장으로서의 지식과 태도 등을 교육 받게 된다. 그런데 그 무렵 받는 교육은 『童蒙先習』·『小學』 등이 주류를 이룬다. 시학습이 우선이 아니다.

58) 昭惠王后 韓氏, 『內訓』 『母儀』章

59) 조선시대 법전인 『經國大典』에서 여성들의 외출 금지는 물론 재혼 금지를 법제화하였다. 그리고 재혼한 여성이 낳은 자식은 出仕도 할 수 없었다. 이는 15세기 成宗

남동생과 함께 아니면 홀로 서열인 손곡에게 글공부를 시킬 수 있었겠는지 의문이 많이 든다. 아마도 난설현의 烈士적 풍모는 손곡의 개혁적 의식의 영향이라기보다는 양천 허씨 집안의 가풍으로 전해지던 家學의 결과로 보는 편이 타당한 주장일 것이다. 부친 허엽도 1562년 경연장에서 明宗에게 己卯士禍(1519) 때 죽은 조광조의 복권을 계속 요구하다가 파직 당했으며, 큰 오빠 허성은 東人으로서 일본에 다녀온 후, 일본이 침략할 뜻이 있다고 하여, 같은 당파인 김성일과는 다른 목소리를 낸 소신의 인물이었다. 뿐만 아니라 허봉은 법 적용을 잘못하였다하여 율곡 이이를 탄핵하였으며, 남동생 허균은 개혁을 꿈꾸다 참형을 당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아버지와 형제들이 자신들의 뜻이 옳다고 믿으면 행동으로 실천하는 진보적 성향을 지녔던 인물들이다. 이런 집안에서 자란 허난설현이기에 시대를 앞선 생각은 당연한 결과인 것이다. 난설현의 문장이 家學의 결과라고 허균도 이미 밝힌 바 있다. 시대를 앞서 간 여인은 이렇듯 집안에서부터 시작되었다.

---

代에 와서 여성 규제가 더욱 강화되었다. 이후 성리학으로 무장한 가부장적 사회는 七去之惡 · 三不法 · 忠臣不事二君 · 烈女不事二夫 등으로 법제화되었다.

參考文獻

1. 基本資料

宋刊本十三經注疏附校勘記『詩經』, 藝文印書館, 1981.

宋刊本十三經注疏附校勘記『論語』, 藝文印書館, 1981.

司馬遷, 『史記』, 樂天出版社, 1974.

杜甫, 『分類杜工部詩』, 『杜詩諺解』本, 景仁文化社, 1975.

朱熹, 『朱子大全』, 曹龍承 影印本, 1978.

朱熹, 『朱子語類』, 啓明大 圖書館 所藏本.

『古文眞寶』, 景仁文化社, 1983.

『毛詩序』

司馬遷, <屈原列傳>

朱熹, 『詩集傳序』

『楚辭』

권용호 옮김, 『초사』, 글항아리, 2015, 21~458쪽.

『淵明·王維全詩集』, 日本圖書, 誠進社, 1979, 1~629쪽.

『李白全詩集』上, 中, 下, 日本圖書, 誠進社, 1979, 1~829쪽.

『杜甫全詩集』1~4, 日本圖書, 誠進社, 1979, 1~822쪽.

『白樂天全詩集』1~4, 日本圖書, 誠進社, 1979, 1~873쪽.

『蘇東坡全詩集』1~6, 日本圖書, 誠進社, 1979, 1~821쪽.

昭惠王后 韓氏, 『內訓』

文暉鉉, 『許蘭雪軒 全集』, 寶蓮閣, 1972, 1~525쪽.

吳海仁 譯註, 『蘭雪軒 詩集』, 해인문화사, 1980, 1~358쪽.

허경진, 한국의 한시 10 『許蘭雪軒 詩選』, 평민사, 1987, 15~126쪽.

柳成龍, 『西厓集』

許筠, 『惺翁識小錄』

許筠, 『荷谷集』 『題杜律卷後奉呈妹氏蘭雪軒』

李德懋, 『青莊館全書』

李晬光, 『芝峯類說』

丁若鏞, 『與猶堂全書』, 서울大 古典刊行會, 1966.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참조.

## 2. 論著

김경진, 『許蘭雪軒의 遊仙詩에 나타난 幻想性 考察과 指導方案 研究』,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1~81쪽.

김복순, 『조선시대 여성 한시에 나타난 여성 주체의 성격 연구』,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1~86쪽.

김명희, 『허난설헌의 시문학』, 국학자료원, 2013, 19~617쪽.

김성남, 『허난설헌 시 연구』, 소명출판, 2002, 17~272쪽.

金鍾順, 『許蘭雪軒 文學과 生에 對한 페미니즘 研究』, 한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1~98쪽.

김지숙, 『허난설헌 한시 연구』,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1~75쪽.

남연, 『許蘭雪軒 詩에 나타난 道교사상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1~48쪽.

박혜숙, 『허난설헌』, 건국대학교 출판부, 2004, 16~318쪽.

유육례, 『허난설헌의 애정시 연구』, 『溫知論叢』 제44집, 溫知學會, 2015, 43~62쪽.

유임순, 『허난설헌 시에 나타난 페미니즘 의식 연구』,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1~87쪽.

이화형, 『허난설헌의 삶과 문학에 나타난 주체와 자유의식 고찰』, 『우리문학연구』 제50집, 경인문화사, 2016, 145~173쪽.

李淑姬, 『허난설헌의 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7, 1~315쪽.

임명숙, 『노천명 시와 페미니즘』, 한국학술정보, 2005, 17~299쪽.

장인애, 『허난설헌의 시문학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5, 1~170쪽.

장정룡, 『허난설헌 평전-불꽃같이 짧은 생애의 찬란한 시문학』, 새문사, 2008, 15~391쪽.

전재연, 『허난설헌 한시에 나타난 페미니즘 연구』,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1~71쪽.

鄭東眞, 『許蘭雪軒의 家庭環境과 여성 의식』, 강릉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1~47쪽.

鄭堯一, 『漢文學의 研究와 解釋』, 一潮閣, 2000, 3~305쪽.



- 車玉德, 『許蘭雪軒 작품에 나타난 페미니스트 의식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6, 1~133쪽.
- 崔賢伊, 『許蘭雪軒 詩에 투영된 自我像 研究』, 公州大學校 大學院 석사학위논문, 2011, 1~45쪽.
- 한성금, 『許蘭雪軒 漢詩의 美學』, 조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1~161쪽.
- 허미자, 『허난설헌』, 성신여자대학교 출판부, 2007, 12~328쪽.
- 황혜경, 『허난설헌 한시를 통해서 본 여성의식』,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1~55쪽.

ABSTRACT

Heonanseolheon's Consciousness through her Chinese Poems

Yun, In-hyun

Heonanseolheon's consciousness through her chinese poems is a sense of sovereignty for woman that is ahead of her time. Recognizing the world with subjectivity was blamed at that time. It is because all the thing were judged by man-oriented dominant discourses including social norms, institutions and value judgment. Heonanseolheon longed for her love through her positive view of love as an ego that she protected herself. That hunger for love was prohibited by social and cultural space so she tries to realize her personal identity. Longing for immortal world she was favor of was her own trait. Her life that was discouraged by norms and a measure of value was realized through her writing. Her immortal world means overcoming contradictory world in reality and indicates the realization of her ideal. She was invited to the immortal world and remarriage was possible in immortal world that was impossible in reality. Carving for immortal world which formed through her life after 20<sup>th</sup> century was the core of speaking as a woman and it was a pivot of writing as a woman. In addition, she have the feature of loyalty in that she have interest in her neighborhood and have thought before the age.

**Key Words** Heonanseolheon, sense of sovereignty, writing, long for ideal, feature of loyalty, woman ahead of time

논문투고일 : 2017.10.15

심사완료일 : 2017.11.09

게재확정일 : 2017.11.15